

SOFTWARE ENGINEERING

[TP5]_[T3] PPT
Final

INDEX

1. SYSTEM TEST COUNTER MEASURE

- PROCESS
- CONTENTS
- SUMMARY (TESTCASE - RESULT)

2. PROGRAM DEMO

--

3. PROGRAM SUMMARY

- CONTEXT DIAGRAM
- DATA FLOW DIAGRAM
- STATE TRANSITION DIAGRAM
- STRUCTURE CHART

4. IMPELICATION (소감)



1

SYSTEM COUNTER MEASURE

**PROCESS
CONTENTS
SUMMARY**

PROCESS

```
graph LR; M1(( )) --- M2(( )) --- M3(( )) --- M4(( ))
```

원인 진단

결과 확인

자체 테스트 및 결과 확인

소스코드 수정 및 검사

Team 4 의 T3 testcase 기반

CONTENTS (1)

오류(자체 테스트 결과)

진단

수정

결과

1. 영수증 환불시 시간오류
2. 텍스트 파일 생성시 시간오류

POS system이 가지고 있는
헤더파일 중
time.h가 문제원인인 것
같아 재확인

시간을 time.h의
clock() 함수 => time()함수
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수정

Pass
Pass

CONTENTS (2)

오류(자체 테스트 결과)

진단

수정

결과

환불 중 바코드 숫자를 입력했을 때 랜덤한 숫자를 입력해도 valid value로 인식해서 환불과정 진행 중 프로그램 종료.

영수증 바코드 스캔의 데이터 형식이 long long int형이기 때문에 인식오류가 있었다.

long long int 형을 String 형으로 수정.

Pass

CONTENTS (3)

오류(자체 테스트 결과)

진단

수정

결과

리눅스에서는 실행이 되었지만, 시그윈에서는 환경 문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었다.

다른헤더들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찾아보았더니 time.h에 있었다.

이 전에 time.h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고치고 검사해보니 테스트 통과

Pass

SUMMARY

TEST CASE

RESULT

영수증 환불시 시간오류
텍스트 파일 생성시 시간오류

Pass

Pass

환불 중 바코드 숫자를 입력했을 때
랜덤한 숫자를 입력해도 valid value로
인식해서 환불과정 진행 중 프로그램 종료.

Pass

리눅스에서는 실행이 되었지만, 시그윈
에서는 환경문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었다.

Pass

수량 감소시 총액계산에 반영되지않는문제
발견하여 수정

Pass

금액투입전 총액표시 추가

Pass

캐시디스플레이 출력부 오류 수정

Pass

Segmentation fault

-



2

**PROGRAM
D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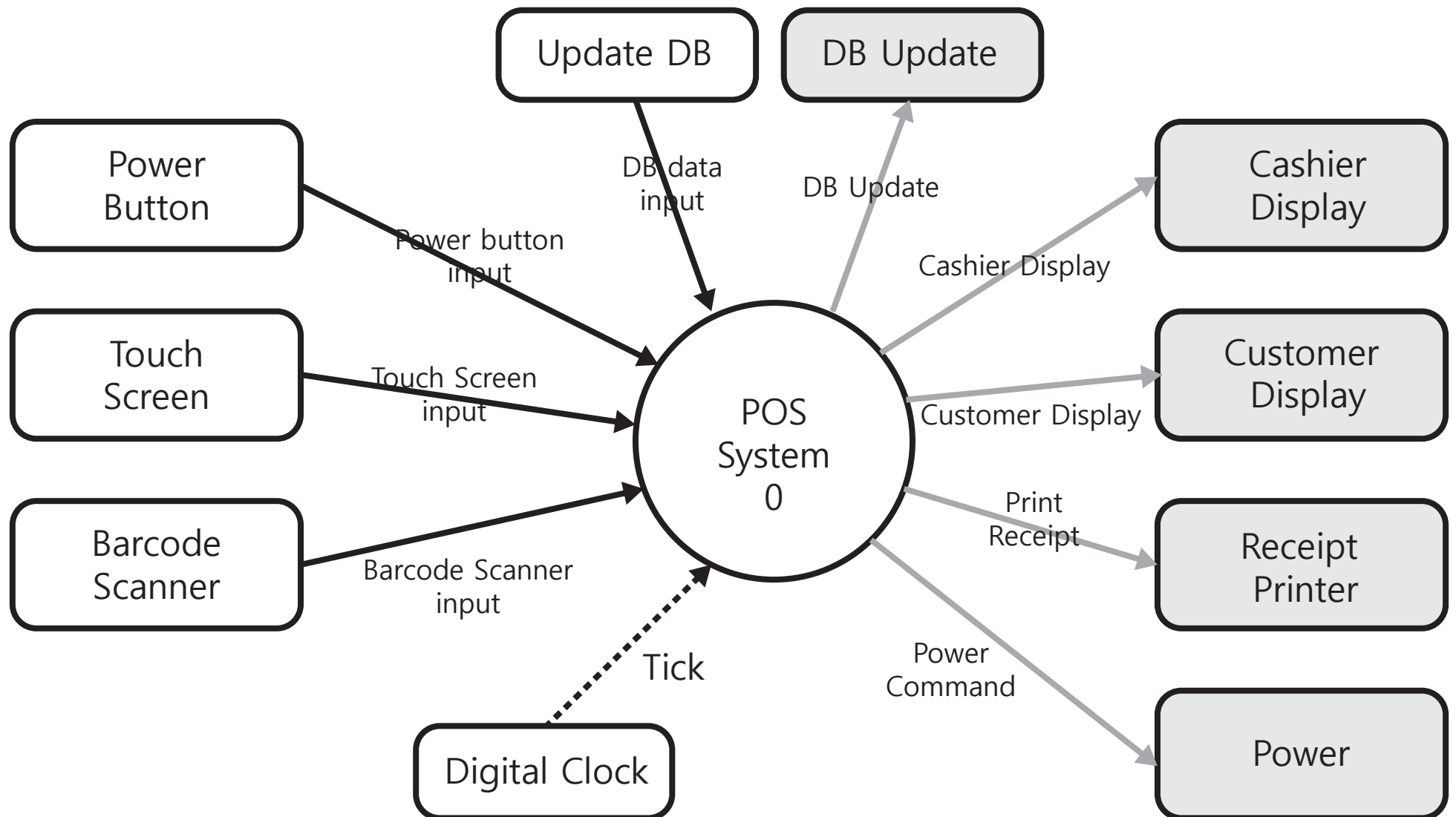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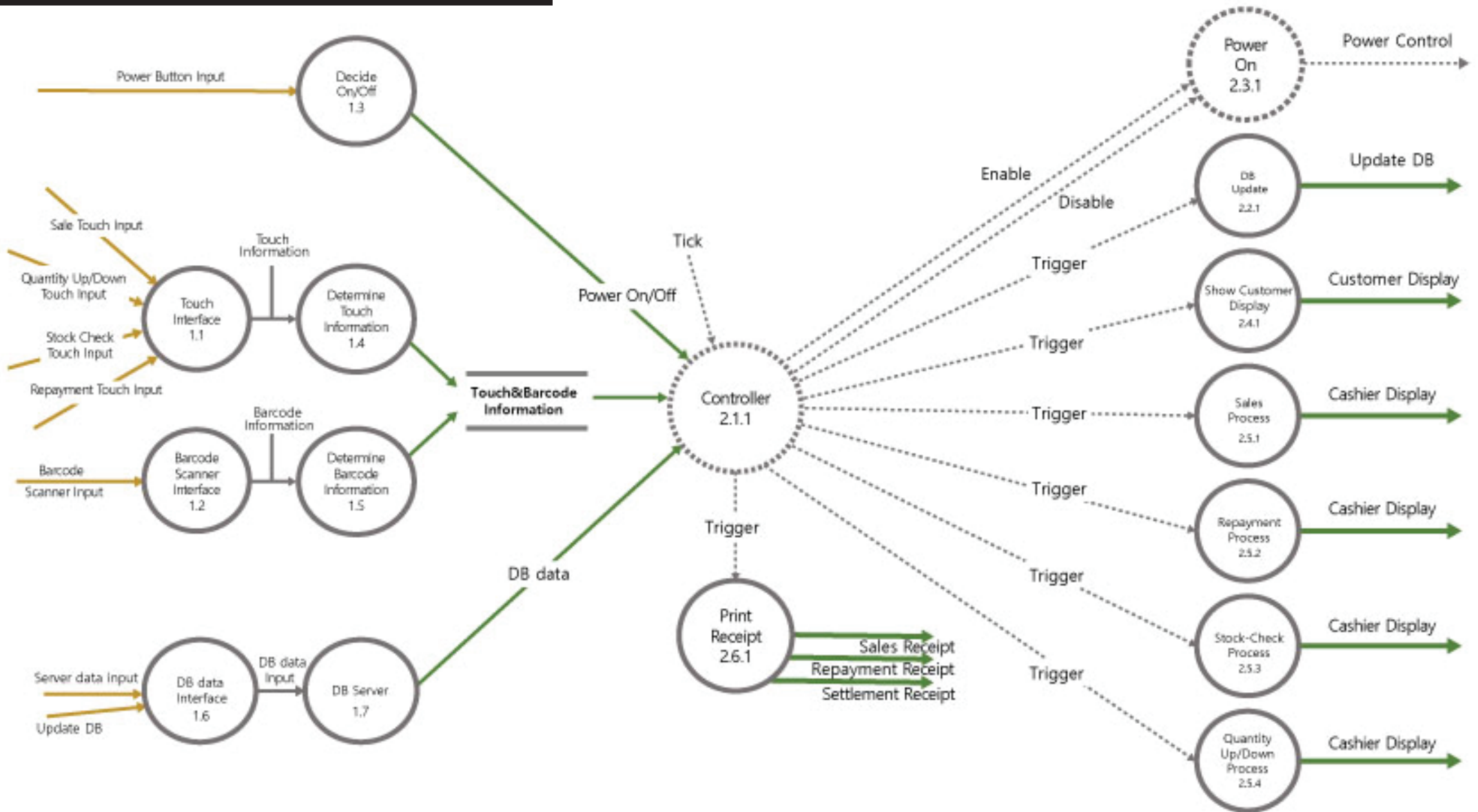
PROGRAM SUMMARY

- **CONTEXT DIAGRAM**
- **DATA FLOW DIAGRAM**
- **STATE TRANSITION DIAGRAM**
- **STRUCTURE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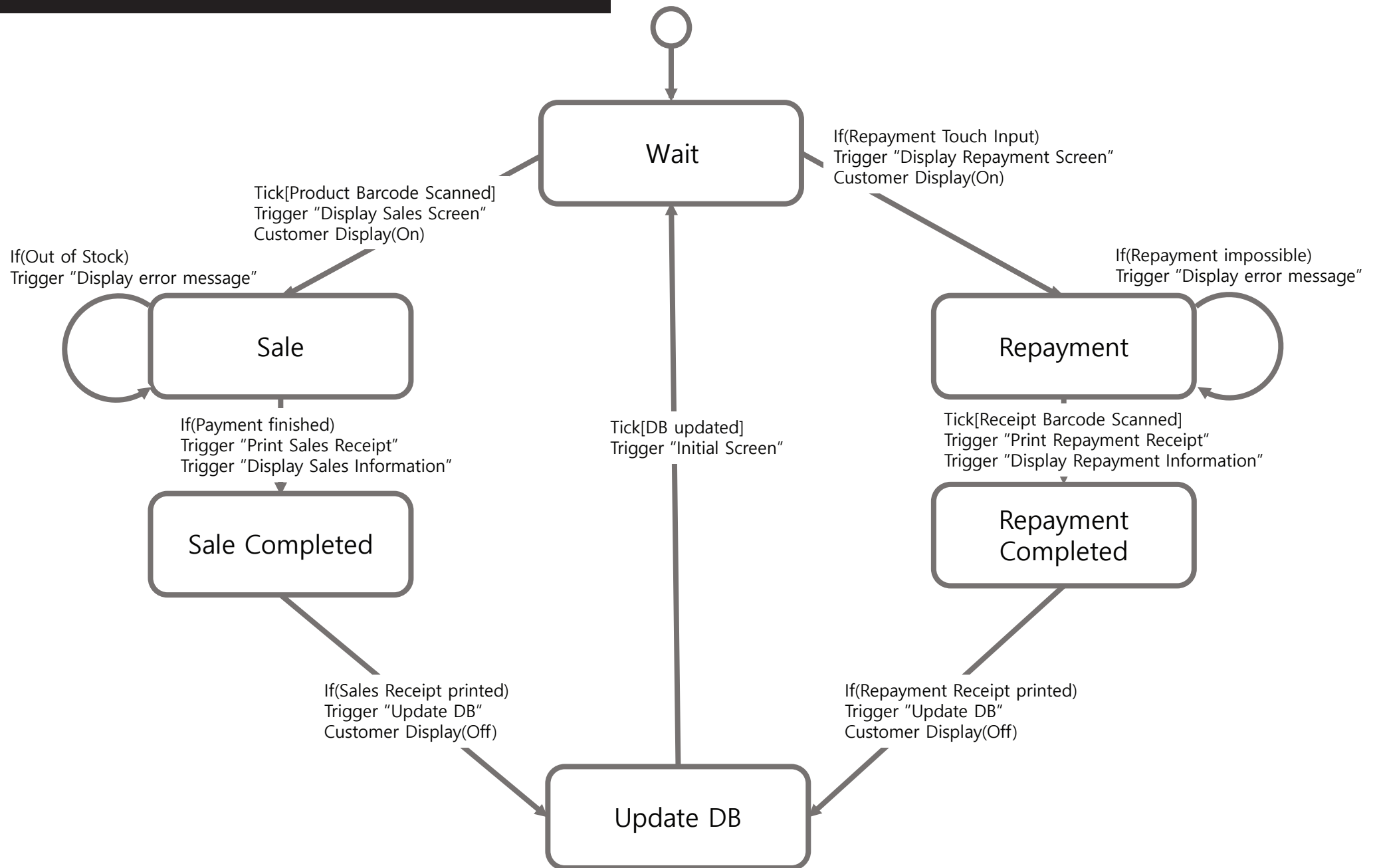
CONTEXT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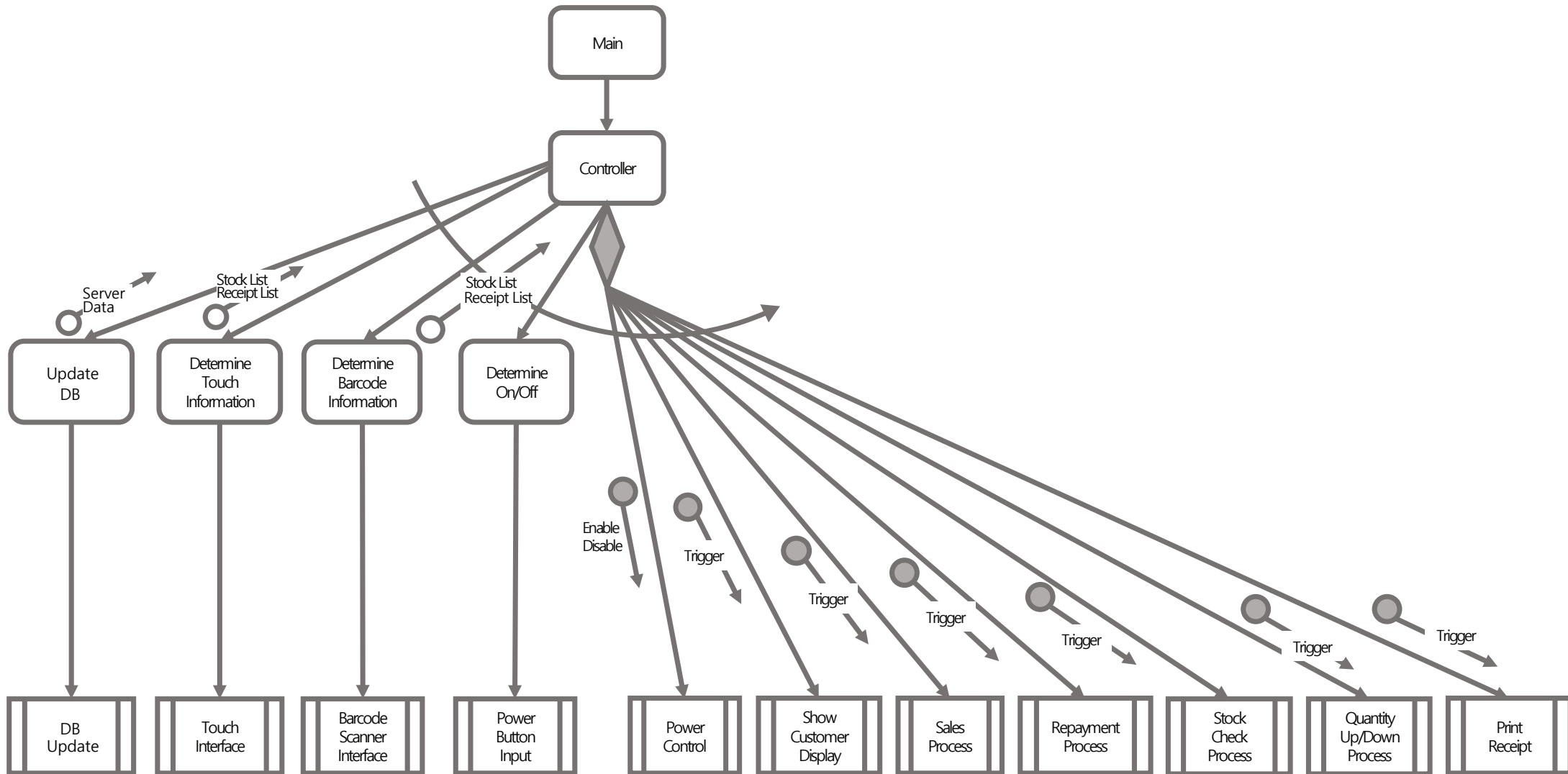
OVERALL DFD



STATE TRANSITION DIAGRAM



STRUCTURE CHART





4

IMPLECATION

(소감)

현인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에 맞게, 다큐먼트에 맞게 맞추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프로그래밍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조금더 튼튼해지고, 문서들이 남아서 나중에 버전을 높이는 단계에서도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문서작업은 팀을 귀찮게 하긴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작업일 수록 이런 프로세스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전상우

코딩을 하는데에 있어 낯선 코드들과 새로운 개발환경등에서 작업을 하려니 힘든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면서 괜찮아졌다. 시간이 부족했지만, 미리 개발자의 삶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하면서 여러면에서 이해도가 올랐던 것 같다.

허윤아

이론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세스를 직접 해보니 느낌이 색달랐다.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데 있어 여러 에러들을 잡아가는게 힘들었지만, 하나씩 잡혀갈 때마다 뿌듯했고, 많은 것을 배운 수업이었다. 문서에 맞춰 조금씩 진행되는 과제를 보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장혁준

소프트웨어공학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DFD등을 그려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물론 처음이라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보다는 문서 작성 등 많은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좀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Q & A



